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

(1면에서 계속)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수는 없었던 험난한 초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시작한 우리 당의 위업을 절대지배해주고 친선만고를 다 떠맡아 이겨내며 일심전력으로 받들어주었습니다.

국가핵무력건설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하는데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크게 공헌하였지만 것처럼 모질고 지속적인 고생을 다 감내해내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승리를 굳게 믿어준 우리 인민이 아니었다면 핵보유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이렇듯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특출하고 열렬한 강인성과 애국심은 결국 온갖 난관을 딛고 이겨 우리 국가의 영광과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귀한 위엄을 하늘끝에 떠맡아올렸습니니다.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화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제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의 핵무력강화모정은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공화국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에 호적립장과 우리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전쟁을 억척할수 있는 힘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자주권과 평화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타격으로 됩니다.

공화국핵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폭제로부터 우리 령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며 따라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람용되거나 불순한 리익실현에 도용되어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침화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력정책과 관련한 이번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명백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앞으로 누구도 우리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문신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역사적진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해놓은것은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과 더불어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올해 공화국정부앞에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를 다져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사업이나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였지만 우리의 투쟁은 더 과감하고 전진적이었으며 보다 소중한 결실들을 낳았습니다.

진국이래 처음 맞닥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의사태를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온 세계의 의혹을 물리치고 전대미문의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속전속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이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신심과 자부심을 더해주고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활력있게 분투해나서도록 적극 추동하였습니다.

최대의 방역위기상황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지만 전체 인민이 추호의 비판과 략심, 공포와 절망도 없이 더욱 분기하여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입니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 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여러 부문들에서도 공세적인 투쟁으로 생산계획수행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주의적성격이 복원되고있으며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실제, 추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진진을 위한 토대와 밑천들이 마련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사업이 실용적인 계획과 목표로 따라 현실적문제해결에로 확고히 전환하고 나라의 교육사업이 균형적으로, 실지 쓸모있는 인재육성방향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보건부문에서 그 어떤 방역위기, 보건위기에도 대응할수 있는 귀중한 실천적경험을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도 의미있는 개진이 있었습니니다.

올해 투쟁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공화국이 모든 분야에서 주객관적도전들을 물리치며 침체와 담보, 좌절을 모르고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으로 즐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자주와 정의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우리 공화국은 시대와 력사앞에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 있으며 이는 보다 과감한 투쟁과 전진, 더 큰 승리를 요구합니다.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결단에 걸철한 온갖 반대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위협과 곤궁, 제재와 유혹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핵무장을 완전해제시키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수 있다고 망상하는 적대세력들의 체질적본능이 개조되지 않는한 우리앞에 도사리고있는 도전과 장애는 절대로 가서질수 없습니다.

세계는 사회주의강국으로 향한 우리 인민의 선택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조선이 자기의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 이 땅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를 팔목할것입니다.

시련의 고비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지나온 로정에서 증명한 자기 고유 특질입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법칙대로 앞으로도 계속 강해져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한길에서 변침을 모르고 목질한 투쟁과업들을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정부앞에는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견지하고 집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혁신과 발전들을 이룩해야 할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절대적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무장력을 더욱더 불패하게 만드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성과 전략적지위로 보나, 우리 혁명대에 조성된 현정세로 보나 제국주의침략 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우세는 필수 불가결의 요수로 나섭니다.

최근년간 우리가 공개한 일정한 부분의 국방발전상을 보고 미구에 저들이 직면하게 될 커다란 위구감을 느낀 미국은 지금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주변에 저들의 핵공격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엄중한 협박성무력 시위행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남조선 현 《정권》도 저들 군대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억제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주장하며 《한미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

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진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제반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주변의 군사적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있다는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되어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적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굳건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입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전략 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정확히 견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세대대무장장비개발을 본격적으로 적극화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첨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특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국가사업전반에 참담계 구현하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상에 적극 참가하도록 주권활동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기풍과 공산주의미덕, 미풍이 계속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민적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고적없이 부강해질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투철한 주적관, 대적관념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계급의 전위투사, 전초병들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실질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5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사업실태와 현실적가능성에 토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으로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제와 부문들사이의 관계, 자립적도대가 정비보강되어 나라의 경제전반이 장성케도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들의 식의 주문제를 푸는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실지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히였으며 생산정상화와 개진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어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밝힌바와 같이 2025년말에 가서 2020년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3배이상 상승하는것으로 보아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고 다음단계의 보다 거창한 투쟁으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담보로 됩니다.

지금 우리앞에 조성된 경제난관은 엄혹하지만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있는 공화국정부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을 내세우고 강력히 조직집행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들을 안아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고 다같이 추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경제건설과 경제발전을 옹계 조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것만큼 인민경제전반을 동시적, 균형적으로 장성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 내각은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되는 중요부문에 힘을 쏟으면서도 다른 경제부문과 인민생활전반에 대하여 다 관심하고 책임지며 돌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체제와 질서가 점점 강하게 세워지고있는데 맞게 생산활동, 경제활동의 전반적실태를 단단히 견어주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동을 잘 지어주며 처지거나 뒤떨어지는 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 국가경제사업의 균형성과 원활성,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가까운 년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과 경공업발전에 계속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 인민들의 물질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유족하고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일관하게 내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도 말 그대로 인민이 바라고 그러보는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 투쟁이 심화될수록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여 인민들이 계속 고통하게 만든다면 그런 경제사업은 아무리 해도 필요없습니다.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먹는 문제, 소비품문제를 푸는것입니다.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양곡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농사조건과 환경이 점점 더 불리해질것이 예견되므로 여기에 대비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상기후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높고 안전한 알곡소출을 거둘수 있게 종자혁명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것을 농사에서 기본근리로 틀어 쥐고나가며 전국이 총동원되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고 한해 농사에 소요되는 영농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꾼들이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업생산전반을 따져보면서 그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즐기고 안정도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관개시설을 복구, 완비하는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달려들어 마사지거나 로화될것은 복구정비하고 중설할것은 중설하면서 관개시설을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2~3년안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밀재배면적과 밀생산량을 늘리고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이를 계속 확대하는것과 함께 생산된 밀을 잘 보관, 가공처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구조를 개선하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이 온을 나라에게 하여야 합니다.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이자 곧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이며 사회주의수호전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밝혀진바와 같이 농촌을 진흥시키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개명시키는것입니다.

농촌혁명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개변시켜야 그들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관철에서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령역을 넓혀주자면 농촌에 선진성, 현대성을 접종하여야 합니다.

(3면으로 계속)